

# “개인의 한 길이 역사 이룬다”

인터뷰 '오늘이 역사다' 낸 정옥자 서울대 교수

‘개인과 역사’, 과연 소통이 가능할까? 개인의 감정과 경험을 철저히 배제하는 역사기술에 있어서 말이다. 하지만 정옥자 교수(서울대 국사학과·62)가 펴낸 <오늘이 역사다>는 이런 통념을 처음부터 깬다. 이 책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아버지가 피난길 청령호수에서 세여동생과 물에 몸을 던지는 광경을 바라보아야 했던 정 교수의 비극적인 가족사를 자전적인 문제로 담았다. 정 교수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역사는 개인의 삶의 경험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그의 확신에서 비롯된다. 때문에 이 책 곳곳에서는 전쟁으로 빼앗긴 가족, 여성이란 사회적 한계를 극복하고 학문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온 사연 등 개인사가 그대로 ‘오늘의 역사’로 이어진다. 11월 28일, 서울대 인문대 7동 2층 연구실에서 정교수를 만났다.

▲이 책의 특징은 개인사를 다룬 점입니다. 과연 개인사와 역사의 소통이 가능할까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토지>의 서회처럼 살았다고 말하곤 합니다. 물론 서회는 토지를 찾는 것으로 명예를 되찾았지만, 난 열심히 공부해서 명예회복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인생에서 삶의 많은 경험들이 내 학문에 온전히 살아남았다고 자부합니다. 내 문제의식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지요. 내 삶의 고난이 역사연구에 큰 도움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개인사를 포함한 것은 개인의 역사를 뛰어넘어 한 역사가로서 성장한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의 삶은 역사연구에 지양분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과 역사는 소통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간 꾸준히 역사에서 오늘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책에 답했습니까?  
-“지금쯤 투쟁의 시대입니다. 한 마디로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는 소리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껏 대립적인 세계관, 투쟁의 인간관계를 극복하는 방향 등을 항상 서구에서만 찾을 수 있다 믿고, 그런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국학을 하는 학자들조차도 그랬습니다. 사실 남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도 중요한 문제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즉 현재의 문제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해법들을 우리 전통에서 찾아보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 전통의 대한 깊은 이해와 재조명, 그것들을 재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 전통문화와 오늘날을 접

시켜서 우리 전통의 정체성을 정립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 책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오늘이 역사다’란 책 제목이 인상적입니다. 아마 ‘법고창신(法古創新)’의 개념을 대중적으로 풀어 쓴 것 같은데, 교수님의 학문적 화두가 되겠네요?  
-“우선, 법고창신은 오늘의 문제 해결을 역사에서 실마리를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옛것을 받아서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뜻이지요. 18세기 연암 박지원의 말입니다. 예를 들어 법고창신의 개념을 교육의 문제에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교육은 한들간 서구교육 제도의 ‘재탕교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우리 전통에서 교육 아이템을 찾지 않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선 정조에게서 학문적·인간적 동질감을 확인했는데, 계기가 무엇입니까?  
-“어려서 부친과 여동생들을 한국전쟁 중에 세상을 떠나보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겪은 큰 아픈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은 나에게 용기라는 것을 불어 일으켜주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공부의 열정을 다시 불태우게 했던 힘이 바로 어린 시절의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조선의 정조와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학자군주로 평생을 공부했고, 어린 나이에 아버지 사도세자를 떠나보내면서도 학문으로 그 아픔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정조에게서 인간적·학문적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 개인 삶은 역사연구의 지양분 정조에게 인간적 학문적 동질감 느껴 ”

정옥자 교수는 1942년 춘천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사학과 졸업과 동시에 결혼을 했다. 그리고 10년의 공백을 깨고, '아즈마대학원생'이 됐다. 99년에는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서울대 규장각 관장에 임명돼 연임을 했다. 또 2004년에는 4회 비추미 여성대상 교육·연구개발 부문 별리상도 받았다. 주요 저서로는 <조선후기 문화운동사>, <에세이집으로는 <역사에서 희망읽기> 등이 있다.

▲요즘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면서 '총성 없는 역사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로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중국이 근본적으로 잘못하고 있습니다. 동북공정은 중국의 맹목적인 민족이기주의 발상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또 한국의 극우 민족주의자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민족주의와 애국심 사이에서 균형 감각을 잃고 중국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동북공정에 맞서 옛 땅 간 도를 되찾아야 한다는 논리까지 펼치고 있으니, 지금은 양국이 극단으로 치달고 있는 형국입니다. 필설로 하는 논리싸움을 해야 합니다. 역사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제가 가진 역사관은 '평화사관'입니다. 얼마나 평화시대를

구축했는지 마음의 안정을 얻고 평화로웠는지 이 사관의 인식 틀입니다. 모든 관계를 투쟁관계로 해석한 식민주사관 또는 제국주의적 사관을 탈피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정년이 2년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쉬운 글쓰기를 통해 일반 대중과 가깝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역사소설도 써볼 생각입니다. 학문의 길은 끝이 없다고 하지요. 정조가 '일모도원(日慕道遠)'라 말했습니다. '해는 저무는 데 갈 길이 멀다'는 뜻처럼 부지런히 학문에 정진할 생각입니다.” 현암사/8천원  
글=김철우 기자·사진=고영배 기자



## 자유로서의 발전

센 이미타야 지음 | 1만8천원 | 세종연구원 펴냄

불자로서 인간 본질에 대한 의문은 늘 필자의 머리 속을 맴돌았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의 본질은 무엇인가와 같은 보다 세부적인 의문들은 수반했다. 때론 낱말의 이해를 대단한 깨달음인양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인간의 행복을 수치화한다는 그 기발한 벤딕의 발상을 접했을 때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듯 인간은 수치화하기 힘든 존재인 것은 분명하다. 늘 과학적 분석에는 그 대상이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빠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센은 달랐다. 필자가 소개하려는 책, 아마 티아 센의 <자유로서의 발전>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본질에 대한 깊은 사유가 배어 나오는 책이다.

센은 이 책에서 미국의 흑인 소독은 인도 케랄라 주 사람들보다 몇 배가 높는데도, 수명은 케랄라 주 사람들이 높다는 매력적인 질문을 던진다. 인간의 삶에서 돈 자체의 양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인도 벵갈 출신인 저자는 이처럼 기존의 '효용', '결과' 등의 용어로 얼룩진 경제분석이 아닌 '자유'라는 인간의 본질을 구성하는

## 불교적인 사유방식의 교과서

가치가 바로 '목적'임을 실증해 나간다. 이 책은 정치철학적 논의의 지평을 파악하는데도 커다란 도움을 준다. 또한 노벨상 위원회는 '어떻게 그가 경제문제의 윤리적 차원을 회복하고 차세대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연구 분야를 열어 주었는가를 생생하게 보여 준다'고 했는데, 이 표현이 너무나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불교평론>이 최근 현대사회의 문제들, 특히 자본주의의 병폐와 관련한 불교적 대안에 대해 다른 것을 읽은 기억이 있다.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톨즈를 잔뜩 인용한 뒤에 <아함경> 몇 구절 인용하고, "자 이렇게 불교와 유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적 대안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낯선스라고 생각했다. 필자는 경제와 정치 그리고 사회에 관한 고민과 사유 속에 부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것이 진정한 불교적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

센의 책은 이러한 점에서 시사점을 던진다. 그가 불자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의 사유 방식이 바로 시사점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진지한 사유를 토대로 하는 그의 분석이 갖는 가치는 바로 그 사유방식에 있다.

우리는 사회적, 정치경제학적 문제와 논의들은 논의대로 별개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가르침대로 별개라는 분리적 사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성을 해보아야 한다. 또한 '이러이러한 서구의 대가와 불교가 이러한 점에서 비슷하다'라는 식의 대안 찾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센의 책은 우리 사회의 수많은 현재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각 속에 부처님 가르침이 어떻게 담겨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현대문명에 불교를 맥락 없이 덧칠하거나 무조건 불교를 포교하면 된다는 식의 기독교적 물량주의식 접근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사유 자체를 불교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센은 그 사유방식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이정훈 (현암사대학 법학박사 겸 강사)

**온 세상은 한 송이 꽃**  
무심 편집 | 값 12,000원

**서양에 한국 선禪을 알린 최초의 책,  
미국에서 'The Whole World is a Single Flower'란 제목으로  
서양의 정신문화에 일대 충격을 불러일으킨 바로 그 책!**

전 세계에 사인과 선원을 개설하여 모든 종교의 장벽을 초월하는 보편적 진리를 제시해온 승산 선사(1875-1948)가 던지는 365일 공안. 그 핵심을 찌르는 질문과 평창(評唱)이 담긴 이 책은 현대인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존재와 삶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를 일러준다.

- 승산 선사의 발치려는 서민구의 북에서 남까지, 그리고 서유럽·동유럽·러시아·아프리카·동남아시아까지 이르렀다. 승산선불교는 세계불교의 커다란 결실이다. 시인 고은
- 승산 선사가 인간세의 원해를 행하고 다니는 징정(證淨)이란, 신라승려 혜초의 왕오천축국 기행보다 더 방대한 것이요 마오쩌둥(毛澤東)의 장정(長征)보다 더 처절한 속연(速緣)이 있다. 도올 김용옥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출판사 **현암사** 121-862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 3동 627-5 전화 02-365-5051 팩스 02-313-2729 E-mail editor@hyeonamsa.com 사이버 철학 카페 www.sophie.co.kr 사이버 법정 www.j-solomon.co.kr